
SeMA

Press Release Ver. 1

2018.08.08.

홍보담당 김채하

Public Relations Kim, Chae Ha

T. 02-2124-89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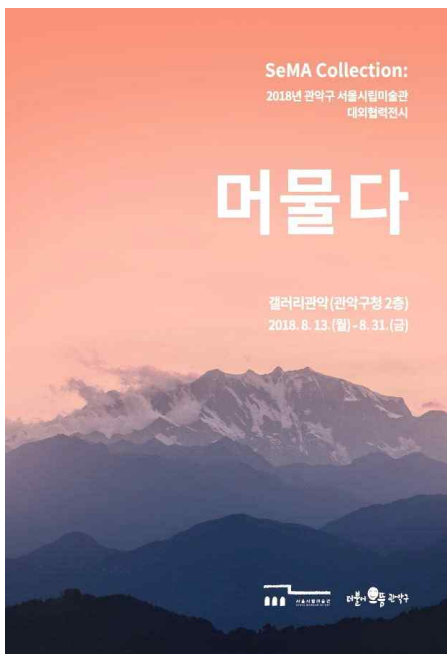
E.mail. chaeha@seoul.go.kr

webhard. <http://sema.webhard.co.kr/>

ID:semapress PW:sema

2018년 관악구 대외협력전시

<SeMA Collection: 머물다>



전시명	SeMA Collection: 머물다
전시기간	2018. 8. 13.(월) ~ 8. 31.(금)
전시장소	관악구 갤러리관악
전시부분	회화
전시작가	공성환, 박상혁, 송은영, 임춘희 이귀영, 이석주, 이현호, 하이경
공동협력	갤러리관악

핵심 개요

- 미술관 비전 '우리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'에 따라 삶과 밀접한 대중 친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관람객들이 예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
-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소통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외협력전시로 관악구 갤러리관악과 협력하여 전시 개최
-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극사실(hyper-realism)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듯한 풍경/장면을 연출하는 작품으로 전시 구성
- 극사실적 표현으로 인해 초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새롭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사유의 장 마련

전시 개요

서울시립미술관(SeMA)은 관악구와 협력하여 2018년 8월 13일(월)부터 8월 31일(금)까지 관악구청 갤러리관악에서 <SeMA Collection: 머물다> 전시를 개최한다.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소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외협력전시로, 미술관의 소장품을 관람객들이 보다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전시 <SeMA Collection: 머물다>는 미술관의 소장품 중 극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듯한 풍경/장면을 연출하는 작품으로 구성된다.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인해 초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새롭게 탐구해볼 수 있는 사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이다.

공성환(1955-)은 물 자체의 근원적 모습에 집중한다. 작가는 물 위에 비친 빛의 떨림, 물결의 파장, 물속의 모습 등 물이 지닌 조형적 요소들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어낸다. 이현호(1985-)는 일상 생활 환경 안에서 관찰한 자연 풍경을 묘사한다. 작가의 화면에 드러나는 풍경은 그가 자연을 마주하며 느꼈던 익숙함과 낯섦이 양가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인데, 이현호는 이를 통해 새로운 현실보기를 제시한다. 이석주(1952-)는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일상성과 초현실성이 공존하는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. 이번 전시에 출품된 <사유적 공간11-25>는 고전 명화인 베르메르(Johannes Vermeer)의 <진주귀고리를 한 소녀>를 차용한 것이다. 원본에 근접하게 복제된 명화의 부분 이미지를 낯선 사물과 함께 놓음으로써 초현실적 분위기가 연출되고, 이는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사유해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.

<SeMA Collection: 머물다>에서 선보이는 10점의 작품을 감상하며 새로운 일상의 미학을 발견하여 재해석하고, 또 다른 시각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.

작품 주요 이미지**공성환(1955-)****<물에서 1>**

2017

112x162cm

캔버스에 유채
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**공성환(1955-)****<물에서 2>**

2017

112x162cm

캔버스에 유채
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**이현호(1985-)****<옆철도>**

2014

120x120cm

한지에 채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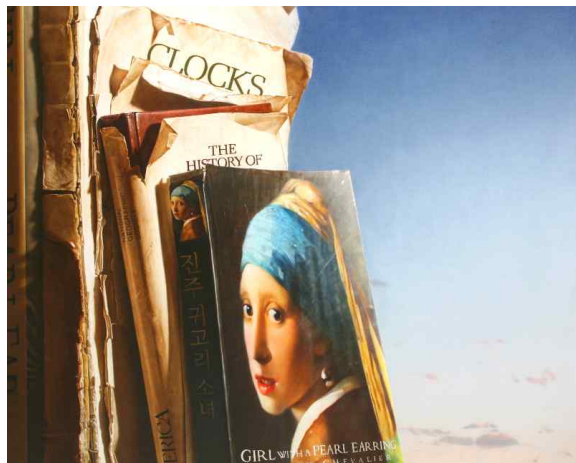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임춘희(1970-)
<나무>
2015
181.2x227.3cm
캔버스에 유채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이석주(1952-)
<사유적 공간11-25>
2009
181.8x227.2cm
캔버스에 유채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송은영(1970-)
<장면11-화이트 드레스>
2009
97x145cm
리넨에 유채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SeMA

Seoul Museum of Art

Press Release Ver. 1

SeMA Collection: 머물다

이귀영(1965-)
<사유와 실존의 공간>
2011
162x130cm
혼합매체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하이경(1972-)
<오후 햇빛>
2014
145.5x224.2cm
캔버스에 유채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박상혁(1969-)
<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-늑대>
2016
91x116.7cm
캔버스에 아크릴릭
서울시립미술관 소장



기본 정보**주최:** 서울시립미술관, 갤러리관악**담당 큐레이터:** 서울시립미술관 이설희**장소:** 갤러리관악**주소:**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2층**연락처:** Tel 02-2124-8955(서울시립미술관)
02-879-5617(갤러리관악)**관람시간:** 매일 10:00~18:00
주말/법정 공휴일 휴관**관람료 무료****홍보 문의:** 김채하 홍보담당 큐레이터(02-2124-8928)**작품이미지
다운로드 방법**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(<http://sema.webhard.co.kr>)**아이디:** semapress**비밀번호:** sema**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**